

#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정의(뜻풀이)에 대하여

---

李秉根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머리말

오랫동안 기다리던 『표준국어대사전』이 햇별을 쏘이게 되었다. 우리 온 국민이 이 사전의 간행을 경하할 일이다.

1992년부터 8년에 걸쳐 국어학계가 총동원되다시피하여 흘린 땀방울이 이제 결실을 맺어 정부에서 직접 편찬한 최초의 국어사전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 '발간사'에서 -

금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민족적 역량을 집결하여 민족 언어 자산을 알뜰하게 모아 놓은 우리말 사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 속에 당당한 문화 민족으로 우뚝 설 뿐 아니라, 이 세계를 앞장서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자긍심을 키우게 된 자랑스러운 증거

---

※ 지금부터 특집에 실린 글의 내용은 국립국어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 아니할 수 없다.

- '머리말'에서 -

위의 따운 글을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이하에서는 '이 사전'이라 줄여 부름)이 정부 즉 국가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하되 거족적으로 또 거국적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사전임을 알 수가 있다. 이 사전의 간행에 앞서서 국립국어연구원은 국어연구소 시절부터 새로운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등의 어문규정을 마련한 바탕 위에서 사전 편찬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사전 편찬 작업은 북한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정부기관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의 사전편찬집단에서 행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에서는 사전편찬집단에서 직접 편찬하여 사회과학출판사에서 간행하였는데, 이 사전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집필 지침을 마련하고서 많은 항목의 집필을 비교적 젊은 국어학자·국어학도들에게 의뢰하였고 이렇게 수집된 원고들을 연구원에서 수정·보완하여 사설출판사에서 간행하게 한 것이 다르다. 사전의 성격 자체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의 언어이론과 사전편찬원칙에 기초하여 만든 우리 식의 대사전"이라 하여 이념 사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 이 사전은 "백과사전이 아닌 언어 사전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짧고 간결하게 뜻풀이를 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전문어와 고유 명사는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더 주었다"고 하여 언어 사전에 백과사전의 성격을 가미한 사전의 성격을 띠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전은 이념 사전은 아닌 것이다.

흔히 사전 편찬을 어느 기관에서 집단적으로 이를 때에는 그 기관의 집단 자체에서 협동으로 편찬작업을 하지 그 기관 밖의 많은 외부인사에게 원고를 청탁하여 편집하지는 않는다. 세계의 유명한 사전들은 유명출판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전문적인 사전학자나 사전편찬자의 지도 아래에서 그 출판사의 사전편찬실에서 편찬된다. 그렇게 되면 사전의 이론적 배경은 그 지도적인 사전학자의 이론이 됨은 물론이다. 사전학자가 언어학자인 경우에는 그의 언어 이론이 사전 편찬의 바탕이 되는데, 예컨대 1910년대에 조선광문

회에서 시도되었던 실용 국어사전인 『말모이』의 편찬은 주시경의 지도 아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기에 그 사전의 언어 이론은 주시경의 것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한불증언』(1880)은 그들의 『한어문던』(1881)에 바탕을 두었고 I. Mel'čuk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이론적인 사전인 현대불어 설명·결합사전(DECFC)도 그의 언어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아니면 프랑스 등의 자본주의국가에서 이루어진 사전 편찬에 비하면 국립국어연구원의 사전 편찬은 특이한 과정을 거친 셈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의 이 사전은 처음에 추진위원회와 여러 자문위원회를 두고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간간이 추진위원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그리고 한두 번의 자문회의에 참여하면서 기대와 우려 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기존 사전들을 검토하여 많은 오류를 바로잡거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고 새로운 표제항들이 추가되고 풍부한 용례를 수집하고 또 어원을 밝힌다든가 하는 작업을 국립국어연구원의 사전편찬실에서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에 좀더 체계적인 사전 편찬을 기대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 수많은 국어학자·국어학도들이 동원되어 집필한 원고를 여러 편수원들이 검토·정리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에는 통일성 있는 체계적 사전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80년대 이후로 새로운 사전학 연구가 시작되어 봄을 일으킨 가운데 있었기에, 사전편수원들이 어느 정도로는 사전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기초를 쌓았으리라는 믿음이 이 사전에 그래도 기대를 걸게 하곤 하였다. 막상 서평을 부탁 받고서 이 사전을 대강 넘겼을 때에는 우려보다는 기대가 옳았구나 하는 느낌을 우선은 갖게 되었다. 과거의 대부분의 사전들보다는 많은 장점을 가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집필자들은 물론이요 국립국어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편수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표현만으로는 흡족하지 않겠으나 애쓴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아끼고 싶지 않다.

## 2. 정의(뜻풀이)의 통일된 기술

사전은 거시구조를 이루는 표제항에 대한 미시구조의 핵심인 정의(뜻풀이)로 구성됨이 기본이 되는데, 표제항은 맞춤법에 따라 표기된 형식으로 독음규칙(reading rule)에 따라 발음정보의 보완을 받고, 정의는 뜻풀이로서 간략히 주어지면서 용례로써 보충되되 여기에 문법 정보와 관련어휘 정보의 보완을 받아 하나의 사전적 조항(artical)을 이룬다. 흔히 독자, 즉 사전이용자는 이 조항을 하나하나 찾아 필요한 언어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어휘들로 확대시켜 다시 하나하나 찾아보게 된다. 여기서 표제항과 정의 사이의 대응관계는 기호론적으로 말하면 記表(signifiant)와 記意(signifié) 사이의 관계요,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音-意味 사이의 대응관계(sound-meaning correspondance)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전에서 표제항과 정의를 분리시키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표제항 없는 정의가 있을 수 없고, 정의 없는 표제항이 있을 수 없다. 표제항을 이루는 언어 단위는 언어 현실 속에서는 방언에 따라 시대에 따라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그리고 여러 장면에 따라 상이한 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고 언어적 환경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다. 따라서 표제항은 흔히 표제화(lemmatisation)를 거치게 마련이고 그리하여 표제항은 단일 형식을 취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의는 의미에 따라 단일할 수도 있고 다의적일 수도 있어 상당히 복잡할 수가 있다. 다의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多義의 분류와 그 배열이 만만하지가 않아 심각하다. 표제항은 거시구조 속에서 그 나름대로 체계적이어야 하고 정의는 미시구조 속에서 관련 항목들과 관련을 고려하여 역시 체계적이고도 통일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한 단어의 언어 정보를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어휘 능력까지 키울 수 있도록 사전이 기능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이 사전을 들여다 보자.

갈짓[木] 결눈으로 새침하면서도 가볍게 한 번 흘겨보는 모양.

갈깃-갈깃(명복) 겹눈으로 새침하면서도 가볍게 자꾸 흘겨보는 모양.

이 표제항 둘은 북한어인데, 『조선말대사전』(1992)에서 모두 부사로 처리된 것으로 ‘갈깃-갈깃’을 명사로 처리한 것은 아마도 오식일 듯하다. 정의의 위 북한사전의 것을 약간 수정하되 두 표제항 사이에는 ‘한 번’과 ‘자꾸’의 차이를 두었다.

흘깃(-긴)㉞ 가볍게 한 번 흘겨보는 모양. ……

흘깃-흘깃(-기틀긴)㉞ 가볍게 자꾸 흘겨보는 모양. ……

여기서도 앞의 ‘갈깃’과 ‘갈깃-갈깃’ 사이에서 볼 수 있었던 차이 즉 ‘한 번’과 ‘자꾸’로 평행시켜 정의함으로써 일단 통일성을 지니게 하였다. 결국 첩어의 정의를 반복의 의미로서의 ‘자꾸’로 통일시킨 셈이다. 사전 기술에서의 통일성은 결국 의미과약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자.

히죽-해죽(-주깨-)㉞ 흐뭇한 듯이 슬쩍슬쩍 자꾸 웃는 모양. …… ㉞

히죽해죽

히죽-해죽(-주깨-)㉞ 만족스러운 듯이 슬쩍 자꾸 웃는 모양. 히죽해죽보다 센 느낌을 준다.

비죽-배죽<sup>1</sup>[-빼-]㉞ 여럿이 다 같이 고르지 아니하게 조금씩 내밀려 있는 모양. …… ㉞비죽배죽<sup>1</sup>. 빼죽빼죽<sup>1</sup>. 빼죽빼죽<sup>1</sup>.

비죽-배죽[-빼-]㉞ 여럿이 다 끝이 고르지 아니하게 조금씩 내밀려 있는 모양. ‘비죽 배죽<sup>1</sup>’보다 조금 센 느낌을 준다.

빼죽-빼죽㉞ 여럿이 다 끝이 고르지 않게 조금씩 내밀려 있는 모양. ‘비죽배죽<sup>1</sup>’보다 아주 센 느낌을 준다.

‘히죽해죽’계통이나 ‘비죽배죽’계통이나 모두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들인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꾀하고 있다. 다만 된소리 자음에 따라 ‘센’ 정도의 차이로 의미차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의 제시에 있어서도 ‘히죽해죽’과 ‘비죽배죽’에만 부여한 점에서도 통일성을 꾀하고 있으나, 양자 사이에 첨어로서의 의미차를 ‘자꾸’와 ‘여럿이’로 표현하고 있다. 작은 문제이지만 ‘히죽해죽’과 ‘히죽해죽’은 ‘흐뭇한 듯이, 만족스러운 듯이’와 같이 유의적 환언의 정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럴 이유는 없을 것이다. 또 ‘히죽-해죽’에 대하여 ‘히죽해죽’보다 센 느낌을 준다고 하고 ‘비죽-배죽’에 대해서는 ‘비죽배죽’보다 조금 센 느낌을 준다고 하여 그 정도를 차이 나게 부가설명함으로써 기술에서의 통일성을 잃은 셈이다. ‘다 같이’는 ‘다 끝이’의 오식일 것이다.

- 해<sup>5</sup>㉠① 입을 조금 벌리고 힘없이 싱겁게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② 입을 조금 벌리고 경망스럽게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해  
 1:히<sup>1</sup>
- 히<sup>1</sup>㉠① 마음에 흐뭇하여 멋없이 싱겁게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② 마음에 흐뭇하거나 멋쩍어 장난스럽게 웃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위의 ‘해’와 ‘히’의 의미가 ‘히죽해죽’의 바탕이 되어 조어상의 형태 구조에 맞게 정의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만 통일성 내지 평행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어근에 있어서의 의미 변화가 일어난 경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정의에 있어서 통일성은 참고 어휘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 ‘가다/오다’와 같은 반대말의 경우를 보자.

- 가다<sup>1</sup>[가, 가니, 가거라]㉠㉡㉢ 【…에/에게】 【…으로】 【…을】 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 ㉠
- 오다<sup>1</sup>[와, 오니, 오너라]㉠㉡㉢ 【…에/에게】 【…으로】 【…을】 ①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 혹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움직

여 위치를 옮기다.

위낙 복잡한 다의성을 보이는 경우이나 이 사전에서 ㉠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반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위에 인용된 의미를 보면 동일한 통사 구조로 쓰이면서도 이러한 반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체계성을 잃어버린 셈이다.

또 하나의 경우로 ‘본말’과 ‘준말’과의 관계를 보자.

빼주룩-빼주룩㉠ ‘빼죽빼죽’의 본말

빼죽-빼죽㉠ 여럿이 다 끝이 조금 길게 내밀려 있는 모양. ‘비죽비죽’보다 센 느낌을 준다. ㉠빼주룩빼주룩.

사실 어느것이 ㉠이고 어느것이 ㉡인지 가리기는 어려운 경우이다. 이 두 표제항은 ‘본말’과 ‘준말’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어감을 달리하는 별개의 단어인지 방언차를 보이는 것인지는 모른다. 그런데 여기서 ‘본말’의 개념은 분명하지가 않다. 개념 규정도 없고 이 사전의 표제항으로도 실려 있지 않다. 아마도 이전에 써 온 용어인 ‘본딤말(“줄여지지 않은 본디소리마디의 말”)’일 듯하다. 그런데 문제는 뜻풀이를 ㉡에 주고 있는 특이한 방식에 있다. ‘빼주룩빼주룩’과 ‘빼죽빼죽’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 있다. 일반적인 처리 방식처럼 이 사전에서도 ㉡에는 뜻풀이를 주지 않고 ㉠에 뜻풀이를 부여하고 있는 표제항이 있다. 예컨대 ‘마음’에는 뜻풀이를 주고 ㉡인 ‘맘’은 ‘마음’의 준말로만 지시하고 뜻풀이는 주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면서도 위의 경우에는 준말에 뜻풀이를 줌으로써 통일성을 해치게 하고 있다.

이 사전에서는 ‘본말/준말’로 처리된 특이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푸드득’과 ‘푸드득’이라든가 ‘덜거덕’과 ‘덜걱’ 등등이 그것들인데, 과연 이들이 ‘본말/준말’의 관계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분명히 어감의 차이가 있는 관련어휘들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전이용자는 대체로 하나하나의 항목을 찾아 필요

한 언어 정보를 얻어, 이 경우에만 그친다면 통일성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통일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전이 통일을 갖추면 언어 지식을 좀더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러한 통일을 갖춘 사전이 그렇지 못한 사전보다는 좀더 낫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사전학(Systematic Lexicography)에서 어떤 단어부류의 통일된 기술(a uniform description of a certain class of words)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cf. Apresjan).

### 3. 다의어의 분류와 배열

국립국어연구원의 이 사전은 기본적으로는 현대국어 중심의 공시적 사전이다. 따라서 뜻풀이는 현대어에만 주어지게 마련인데, 만일 동일한 표제형에 남북한 의미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뜻풀이와 구별하여 주어지기도 하였다. 예컨대 ‘바쁘다’의 경우 뜻풀이를 보면

바쁘다[바빠, 바쁘니] ㉠① 일이 많거나 또는 서둘러서 해야 할 일로 인하여 짠 겨를이 없다. …… ② 몹시 급하다. …… ㉡ [-기에]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 짠 겨를이 없다. …… ㉢((주로 ‘-기(가) 바쁘게’ 구성으로 쓰여)) 어떤 행동이 끝나자마자 곧의 뜻을 나타낸다. …… ㉣① ㉤ 힘에 부치거나 참기가 어렵다. …… ㉥ ㉦ 매우 딱하다. ……

와 같아 ㉠㉡㉢은 남한 내지 남북한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뜻이고 ㉣는 북한에서만 쓰이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 통일을 대비해서는 이러한 의미차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위의 ‘바쁘다’는 다의성을 보이는 표제항으로 多義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고 다시 ㉠과 ㉣는 하위 다의로 두 가지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다의어의 기술은 다음과 같이 <일러두기>에서 원칙을 세워 놓았다.



다의어의 뜻풀이는 품사별로 ㉠㉡㉢…과 같이 나누고 문형 정보별로 ①②③…과 같이 나누며 의미별로 ㉠②③…과 같이 나누었다.

라고 하여 분류에 초점을 두었다. 위의 ‘바쁘다’는 그러니까 문형 정보별로 ㉠②③④의 네 가지로 나눈 셈이고 그 중에 ㉠과 ㉣를 의미별로 각각 ①②로 나눈 셈이다. 미시구조를 상당히 정밀하게 기술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기는 하나, 북한어 ㉣의 경우에는 뜻풀이에 제한적인 문형 정보를 주지 않고서

- ① 사흘 동안에는 좀 바쁘겠다.
- ② 보기 바쁘다 / 말하기 바쁘다 / 배우가 먼저 웃으면서 관중에게 웃음을 강요하면 웃기도 바쁘거니와 웃는 경우에도 그것은 면구스러운 웃음으로밖에 될 수 없다.

와 같은 용례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①의 경우에는 뜻풀이에서 ‘-기가 어렵다’의 구성을 취하고 있고 ②의 경우에는 용례에서 ‘-기(도)’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결국 ㉡와 ㉢은 문형 정보에서 깊은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바로 거기에서 의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왕에 남북한의 대조 사전으로 기술하려면 문형 정보별로 분류하여 의미차를 보이는 것이 이 사전의 원칙에 따라 좀더 체계적일 듯하다.

다의어의 뜻풀이 원칙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분류에만 초점을 두었지, 그 분류된 하위의미들을 배열하는 원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의어 배열 순서’가 제시되어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① [현대어] → [옛말] ② [옛말] → [북한어] ③ [방언] → [옛말] ④ [비표준어] → [옛말] … 등은 다의어 자체의 배열은 아니다. 또 <일러두기>에서 제시한 일반어와 전문어에 대한 배열순서도 마찬가지로 여긴다. 다의어의 하위의미의 배열순서에 대하여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좋다’를 예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여 보자.

‘좋다’는 많은 사전들에서 다의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로 다루어 왔다.

이 사전에서도 마찬가지다. 뜻풀이만을 뽑아 보자. ‘좋다’는 흔히 [양호함] [적합함] [흡족함] [호감(?)]의 뜻을 보이는데(이현희, 「‘좋다’ 구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진단학보』 87, 1999), 앞의 세 개는 평가형용사로 마지막 것은 심리형용사로 현대어에서 쓰인다.

좋다<sup>1</sup>

- ①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훌륭하여 만족할 만하다. [양호함]
- ② 성품이나 인격 따위가 원만하거나 선하다. [양호함]
- ③ 말씨나 태도 따위가 상대의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아니할 만큼 부드럽다. [양호함]
- ④ 신체적 조건이나 건강 상태가 정상보다 나은 상태에 있다. [양호함]
- ⑤ 사람이 염치가 없거나 체면을 가리지 않다. [양호함]
- ⑥ 날씨가 맑거나 고르다. [양호함]
- ⑦ 넉넉하고 푸짐하다. [양호함]
- ⑧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서 길다. [양호함]
- ⑨ 날짜나 기회 따위가 상서롭다. [양호함][적합함]
- […이] ① 어떤 일이나 대상이 마음에 들다. [호감]
- ② 감정 따위가 기쁘고 만족스럽다. [흡족함]
- ③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가 문제될 것이 없다. [흡족함]
- 어떤 일을 하기가 쉽거나 편하다. [적합함]
- 어떤 물질이 몸이나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상태에 있다. [양호함]
-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낫다. [양호함]
- 서로 친하여 잘 어울리다. [양호함]

위의 뜻풀이를 분류하여 보면 ①은 전체적으로는 [양호함]에 속하고 ②는 [호감]과 [흡족함] ③은 [적합함] ④⑤⑥은 [양호함]에 속하는 듯하다. 만일 이에 따른다면 ②에 심리형용사 [호감]과 평가형용사 [흡족함]이 섞여 있어 다의성의 분류가 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양호함]이 ②와 ④⑤

⑥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사전에서는 문법 정보에 초점을 두어 분류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바로 이 차이로 인하여 양분되어 있는 듯하다. 만일 다의성의 하위 분류에 초점을 둔다면 [양호함]을 뜻하는 경우에는 모두 묶어 풀이하면서 문법 정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전이란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표제항=시니피앙} + {정의=시니피에}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다의성의 배열을 보면 [양호함] [호감] [흡족함] [적합함] [양호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양호함]을 묶어 우선 배열하고 [적합함]과 [흡족함]을 이어 배열하여 일단 평가형용사를 풀이하고 끝으로 [호감]을 나타내는 심리형용사를 풀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하면 ‘좋다’는 크게 [평가성]과 [심리성]으로 분류되고 다시 [평가성]은 [양호함] [적합함] [흡족함]으로 분류될 것이다(줄고, 『한국어 동사의 어휘문법적 특성에 관한 사전학적 연구』, 『애산학보』 23, 1999). 이렇게 분류하면 관련어휘에 있어서도 반대말이 [평가성]의 ‘나쁘다’와 [심리성]의 ‘싫다’로 각각 대응될 수도 있고 ‘나빠지다’와 ‘싫어지다’ 등과도 평행될 수가 있을 것이다. ‘나쁘다’를 이 사전에서 보자.

### 나쁘다<sup>1</sup>

- |                                 |       |
|---------------------------------|-------|
| ① ① 좋지 아니하다.                    | [양호함] |
| ② 옳지 아니하다.                      | [양호함] |
| ② 건강 따위에 해롭다.                   | [양호함] |
| ③ ① 어떤 일을 하기에 시기나 상황이 적절치 아니하다. | [적합함] |
| ② 어떤 일을 하기에 쉽지 아니하다.            | [적합함] |

나쁘다<sup>2</sup> 먹은 것이 양에 차지 아니하다. [흡족함]

위와 같이 ‘나쁘다<sup>1</sup>’은 평가형용사로 [양호함]과 [적합함] 두 의미로 쓰이고 ‘나쁘다<sup>2</sup>’는 역시 평가형용사로 [흡족함]의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어서 ‘나쁘다<sup>1</sup>’을 ‘나쁘다<sup>2</sup>’와 동음이의어로 보아 분할 배열(dégroupement)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는 관련 항목인 ‘좋다’와의 체계성을 잃어버린 결과를

낱게 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기존의 사전들에 비하여 이 사전이 좀더 정리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끝으로 다의어에 대한 정의 즉 뜻풀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통적인 의미자질의 처리에 있다. 하나의 표제항에 하나의 공통적인 의미가 없다면 그리고 하위 분류된 범주에도 공통적인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의 다의어 표제항이 아니라 동음이의어 표제항들로 분할 배열시켜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든 공통적인 의미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의어에 대해서 공통적인 의미를 제시한 사전들은 아직은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됨은 사실일 것이다. 북한의 『사전편찬리론연구』(정순기·리기원, 1984)에 제시한 기본뜻과 다의의 연관이나 기본뜻과 갈라진 뜻들의 배열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표제항과 정의 사이의 관계를 언어학적으로는 어찌 풀 것인가. 새로운 언어 이론이나 사전학적 이론이 제기 될지도 모를 일이다.

#### 4. 맺음말

사전 편찬은 끊임없는 사전 편찬자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론과 실체를 넘나들면서 사전 조항을 꾸미고 관련항목들을 넘나들면서 통일적인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 하루이틀에 끝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끊임없는 지구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사전편찬은 또한 이용자와의 싸움이다. 사전이용자의 가려움을 시원스레 그리고 뚜렷이 긁어 주어야 하고, 이용을 용이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 모두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극난을 극복하면서 이루어 낸 국립국어연구원의 편찬자들과 집필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심심한 치하를 드린다. 그러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다. 몇몇 가지의 미비점을 지적함으로써 서평을 대신하였는데, 이제 좀더 훌륭한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 싸움이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이루어져도 좋고 재력있는 출판사의 계획 아래에서 진행되어도 좋다.